

우리나라의 도서 판권기 기술요소 변천 고찰*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Elements of the Book Colophon in Korea

이 명 규(Myoung-Gyu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판권기 기술요소 비교분석 |
| II. 판권기의 정의와 기능 | 1. 서지기술의 정보원 |
| 1. 판권기의 정의 | 2. 저작권 관련 사항 |
| 2. 판권기의 기능 | 3.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원 |
| III. 판권기 기술요소의 변천 | 4. 기재위치 및 기술방식 |
| 1. 시대 구분 | V. 결론 |
| 2. 시대별 판권기 사례 | |

초 록

판권기는 당해 도서와 관련된 서지사항을 한곳에 모아 표기한 것으로 도서의 말미나 표제지 이면에 위치한다. 판권기는 목록작성에 필요한 서지사항의 정보원, 저작권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 독자에게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원 등의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서가 아닌 신서의 출판은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도서의 판권기 기재요소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했다. 판권기 기재요소 중에서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표기되는 요소는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가격 등이며,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추가로 표기되는 요소는 판표시, ISBN, 발행처 등록, 출판사 연락처, 저자약력 등이다. 반면에 생략되는 요소는 저자주소, 계좌번호, 검인지 등이다. 향후에 판권기 요소에 도서의 크기가 표기되길 바란다.

키워드: 판권기, 판권지, 판권, 판권장

ABSTRACT

Colophon means an element to describe bibliographic areas of the concerned book on the specific space like a back of the title page or the last page of a book. Colophon functioned as an information source when cataloging in a library, an area concerning the copyright and as an useful information to readers. The publication of a new book has begun since early 1900s in Korea. And the element of the colophon is dependent on changes in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Among the element of the colophon early 1900s until now, the elements consistently appear on the title and the author, a place of publication, a publisher, the date of publication and the price. Additional the elements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are the edition, ISBN, the registration of publisher, the address of publisher and an author career. On the other hand, omitted elements are the address of author, the account number and the seal. In the future, the size of the book is additionally wanted to describe in the colophon.

Keywords: Colophon, Copyright-Page, Imprint-Page

* 이 논문은 2008년도 전남대학교 연구년 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gyulee@jnu.ac.kr)

• 접수일: 2010년 8월 27일 •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4일 •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27일

I. 서론

도서관 “인간의 사상·감정·지식·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내용·체제에 맞추어 문자·글·그림·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것”¹⁾으로 당시의 사회적 문화와 특성을 표현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책을 만드는 과정과 책을 필요로 하는 독자들에게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출판이라 한다. 이처럼 출판물은 지적 창작물의 기본적인 표현매체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틀을 유지하면서 출판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정한 틀, 즉 출판물의 구성형식 중의 하나인 판권기 역시 출판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기재요소들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 즉 시대와 지역에 따라 기재내용이나 위치 등이 다르게 기술되고 있다.

한편, 출판물은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로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수집한 출판물, 즉 자료에 대한 일정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업무가 분류 및 목록 작성이며, 이 때 목록작성은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처리된다. 단행본에 대한 목록을 작성 할 때, 채기하는 정보원은 “원칙적으로 도서 자체에 기초하여 그 도서에 나타난 정보 그대로 기술하는데, 기술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정보원의 우선순위는 1) 표제면, 판권기, 이표제면, 표지 2) 약표제면, 권두 3) 책등(書背) 등의 순이다.”²⁾ 이 중에서 판권기가 가장 다양한 정보원을 담고 있다. 이 판권기에는 목록작성에 필요한 서지기술사항의 요소가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판권기는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한 하나의 정보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판권기에는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출판권자의 판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판권기는 저작권을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중요한 하나의 정보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목록 작성 시 활용되거나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용되는 중요 정보원인 판권기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재요소나 기재위치 등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판권기에 대한 정의와 기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고서의 대칭인 신서를 발행하는 시점(고서와 신서의 구분³⁾)이라고 보는 1910년부터 현재까지 판권기 기재요소 구성에 영향을 끼친 사회 제도적 환경이 변하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당시의 출판의 특징과 판권기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강희일, 한국출판의 이해(서울 : 생각의 나무, 2007), p.35.

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제4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p.96.

3)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개정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p.39, p.215.

II. 판권기의 정의와 기능

판권기는 책을 인쇄하여 출판할 때 그 책의 맨 끝에 별지로 홀수쪽 혹은 표제지 후(뒷)면에 책과 관련된 모든 서지 사항을 기재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판권을 담은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판권기를 영어로는 colophon, 우리나라 언어로는 판권, 판권기, 판권지, 판권면, 판권장, 간기, 간기면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1. 판권기의 정의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기술된 ‘판권기(colophon)’의 정의는 “도서의 말미나 마지막 쪽(페이지)에 저자나 편자, 역자, 표제, 발행처, 인쇄소, 인쇄나 발행일자, 판차, 가격, 저작권, 기타 발행상의 조건 등을 표시한 것, 혹은 이것이 표시된 면, 저자의 약력, 기타 저작 등에서 집필분담 사항을 밝힌 것도 있다. 판권기에 기재된 사항은 동서인 경우 목록작성에서 주정보원으로 취급되어 중요시된다. 판권기에 기재된 발행년은 판권년이라고도 한다. 서구에서는 판권기에 기재된 제 사항을 표제면이나 이표제면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고 판권기는 사용하지 않는다”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출판학 사전에 기술한 판권기는 ‘판권지(版權紙, colophon)’라는 용어로 “서적의 서지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한데 모아 표시한 것으로 권말, 최종면에 서적명, 인쇄연월일, 발행연월일 및 판수와쇄수, 정가, 저자 또는 편저자 또는 역자, 발행자, 발행처와 그 주소, 인쇄자, 인쇄처와 그 주소, 발행처의 등록연월일과 그 번호, 저·역·편자의 약력, 저작자의 검인, 제본소명 그리고 책을 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행처의 전화번호와 대체구좌도 넣으며 ©기호도 넣음”⁵⁾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간기(刊記, colophon)’용어로도 부르며 그 정의는 간단하게 “주로 동양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저자, 서명, 발행소, 인쇄자, 연월일, 가격 등이 기재됨”⁶⁾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간기’는 ‘판권지’의 동의어로 본다.

Harrod's Librarians' Glossary에서는 colophon을 “인쇄에 관한 사항, 인쇄지와 인쇄일, 표제, 저자명, 발행처나 인쇄장치 등을 책의 말미에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첫 판권기는 1457년에 Fust와 Schoeffer가 만든 ‘Mainz Psalter’에 인쇄되었고, 이는 점차로 일반화되었으며 1600년경까지 발행처의 간기로 활용되었다”⁷⁾고 colophon의 역사까지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권기(colophon)’는 “책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⁸⁾으로 도서의 말미나 마지막 쪽에

4) 상계서, p.363.

5) 박신흥 편저, 출판학사전(서울 : 경인문화사, 1991), p.213.

6) 상계서, p.9.

7) Harrod's Librarians' Glossary, Sixth edition(Gower, 1987), pp.183-184.

8) 열린책들 편집부, 열린책들 편집매뉴얼(서울 : 열린책들, 2010), p.32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3호)

책과 관련한 모든 서지사항, 즉 저자, 역자, 편자, 표제, 부제, 총서명, 판쇄표시, 발행처, 인쇄소, 발행이나 인쇄일자, 발행출판사의 소재지, 출판사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정가, 저작권 표시, ISBN, CIP, 저자약력 등을 기재한다. 이는 도서관에서 목록 작성을 할 때 목록의 서지기술사항의 정보원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관한 권리나 출판권 등에 관한 내용의 정보원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판권기의 기재 위치는 출판사의 임의대로 구성할 수 있으나, 위치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도서의 판권기는 일반적으로 책 내용의 본문이 끝난 다음 마지막 홀 수 페이지에 작성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양서처럼 표제지 이면에 작성하기도 한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표제지 앞쪽의 면지에 판권기를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2. 판권기의 기능

가. 서지사항 정보원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목록은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고려하여 편성된 목록을 의미하는데, 이 검색 도구인 목록을 통해서 적합한 자료의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일관된 목록을 편성할 수 있도록 목록기술형식을 정하고 그 기술요소와 배열 수단을 정해놓은 규칙이 바로 '목록 규칙'이다.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에 따르면, 단행본의 기술에 관한 정보원의 우선순위를 보면, 채기하는 "정보원은 원칙적으로 도서 자체에 기초하여, 그 자료에 나타난 정보 그대로 기술하는데, 기술하기 위해 참조하는 정보원의 우선순위는 ① 표제면, 판권기, 이표제면, 표지, ② 약표제면, 권두 ③ 책등 등의 순이다.⁹⁾ 이 중에서 가장 다양한 정보원을 담고 있는 것이 판권기이다. 다시 말해 판권기에는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외에도 판사항, 발행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등 도서관 목록작성에 필요한 서지기술 식별요소가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판권기는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한 주요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저작권 관련 사항

판권기는 저작권과 출판권을 담는 지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출판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권의 하나로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출판할 권리와 저작자가 저작물을 출판할 타인에게 원작대로 인쇄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그림으로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다."¹⁰⁾ 이에 따라 출판권에는 저작권 및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저작권 표시

9)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한국목록규칙, 제4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p.96.

10) 강희일, 전계서, p.78.

는 출판권의 주요 기능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저작권조약(UCC)과 베른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작권 표시는 무방식주의로 저작권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 복제권자의 성명과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와 국내의 저작물일 경우 복제권자의 성명과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및 복제권자의 검인”¹¹⁾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많은 번역물 및 국내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 표시로 © 또는 (C)기호 다음에 저작자 이름과 초판 발행연도를 기재한 방식을 따르며 검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의 등록을 위해서는 “저작자명·국적·주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포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¹²⁾의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판권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또한 출판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출판권을 받아 출판을 하여야 하며 특약이 없는 출판물은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출판권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주요 공간은 판권기가 될 것이다.

한편, 판권과 유사한 말로 ‘판권장’이 있는데, 판권장이란 “책의 마지막 면에 발행 연월일, 저자 또는 역자의 이름, 인쇄자·발행인, 발행처 이름, 정가 등을 표시한 것. 이 면에는 저자나 역자의 검인지를 붙이는 관례가 있었는데 근년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¹³⁾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인지가 저작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년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작권 법이 활성화되면서 검인지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판권기는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출판사를 홍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출판사는 저자약력, 과본교환안내 등의 사항을 제공하여 독자가 저자의 약력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판권기에는 독자가 출판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표기도 있다.

이와 같이, 판권기는 도서관에서 목록작성에 필요한 정보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기능으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결정짓는 기준 근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 독자에게 책과 출판사에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판권기는 책의 호적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불법 출판물이 되며, 그 책의 가치는 거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1)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개정 2010. 1. 27).

12) 저작권법, 제53조(개정 2009. 7. 31).

13) 엔사이버백과검색, <http://www.encyber.com/search_w> [인용 2010. 8. 10].

Ⅲ. 판권기 기술요소의 변천

우리나라에서는 고서¹⁴⁾와 신서¹⁵⁾의 구분 시기를 장정 체계의 제한과 언어의 체계가 바뀐 1900-1910년으로 본다. 고서에서도 판권기의 기능을 하는 '간기'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논하는 판권기는 1900년대 초, 개화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간행기록을 말한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판권기 기재요소에 대한 원칙적 제한이 없으므로 기재요소의 변화를 시기별로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판권기 기재요소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설치되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 그 시대별로 특정 출판사에서 발행한 도서의 판권기를 사례로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대 구분

1900년대, 개화기부터 오늘날까지 도서의 판권기 기재요소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대를 구분 짓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시대를 구분 짓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즉 법령 제정 또는 그 법이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둘째, 사회적, 역사적 환경의 큰 변화에 따라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 100여년의 출판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1900년대 초부터 근대 인쇄술에 의해 민간출판사가 일반 대중을 위해 책을 출판하기 시작한 시기의 근대출판 태동기, 일제의 강점으로 36년간 출판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의 일제강점기, 해방과 전쟁으로 출판의 정착이 어려웠던 시기의 해방과 전쟁기, 전쟁 후 출판의 재건에 나섰던 시기의 출판건설기, 독서인구 확대와 출판량 증대에 따른 출판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상업출판기, 그리고 1990년대 전자책의 출현으로 인쇄출판이 위기에 직면한 시기인 출판전환기 등 시대를 크게 6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6개의 시대구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11개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14)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전계서, p.39.

15) 상계서, p.215.

〈표 1〉 우리나라 출판 역사의 시대별 구분

구분	시대	출판에 대한 사회문화적 특징과 현상
근대 출판 태동기	1910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84년 근대인쇄술로 민간출판사가 일반대중을 위한 단행본 첫 출판 - 광인사 발행 『忠孝經集註合璧』 • 국한문 혼용문체로 쓴 최초의 단행본 - 광인사 발행 『농정촬요』 • 1905-1910사이의 우리 출판인들에 의해 출판된 서적 - 171종 • 1900년대 인쇄설비 갖춘 민간인쇄소 등장 - 광문사, 박문사 등 • 1908년 신문관, 보인사 새로 설립 • 단행본 출판경향 - ① 서구 신지식 보급위한 서구 서적 번역, 번안, 편술 소개, ② 우리 고유문화 계승 - 한글 보급, 고전 복간 및 번역 ③ 신소설 출판
일제 강점기	1910-1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정치 • 출판법 제정(1908), 공포(1909. 2) - 애국계몽서적 판매금지조치, 신소설, 족보, 문집 등 발행
	1919-19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운동계기, 문화정치 표방 • 우리 출판 탄압 속에 일본인 경영 출판사/서점 국내시장 잠식 경쟁 •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출판 활기 - 박문서관, 한성도서(주) 등 • 출판사 중 최초로 기업화된 주식회사 체제 갖춘 곳 - 한성도서(주) • 우리나라에서 1939년 문고를 첫 발행 - 학예사의 조선문고 • 1930년대 양장본 장정 유행
	1939-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사용금지, 민족말살정책 강행, 태평양전쟁 • 1943년 8월 출판사업령 제정 시행 - 일체의 출판활동 금지, 출판사업 폐지/휴업 명령, 용지/서적 판매 배급제 실시, 민족출판 어려움
해방과 전쟁기	1945-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우의 사상대립시기 • 1945년 10월, 미군정 '출판등록제' 실시 - 45개 등록 • 출판사 재개 - 정음사, 한성도서, 박문서관, 삼중당, 영창서관 등 • 출판사 창업 - 을유문화사, 고려문화사, 현암사(대구), 계몽사(대구) • 문고출판의 부활 - 박문문고, 을유문고, 민중문고 등
	1950-1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 - 출판시설 파괴 • 대구 - 출판물 제작지, 부산 - 출판물 판매지 • 1953년 2월 화폐개혁 - 물가고 가중
출판 건설기	1953-1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년 정부조직법 개정, 일반도서 행정업무가 문교부로 이관 - 교과서/학습참고서 출판경향(1957년 전체출판중수 37% 이상 학습참고서) • 1957년 저작권법 제정 공포 - 시행의지 약함
	1957-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8년 한국출판협동조합 발족(47개 출판사) - 도서공급 일원화 목표 • 대형기획출판물 대동 - 전집, 큰사전 등 • 활자개량과 제작수준의 향상 - 동아출판사, 민중서관, 대한교과서 등 • 1961년 7월 출판사 신규등록 중단, 등록에 관한 규정 강화 • 1963년 도서관법제정공포 - 허울뿐 • 1966년 출판통계 체제 개선(KDC의거 파약) - 출판중수, 발행부수, 가격 등
상업 출판기	1970-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적인 베스트셀러 시기 - 단행본과 문고본 출판 새바람 • 1976년 발행중수 1만종(13,334종) 돌파 • 1980년 발행중수 2만종(20,985종) 돌파 • 책값의 저렴화, 전집류 판매의 유통질서 파괴와 출판사간의 갈등 • 1982년 컴퓨터 조판 시스템을 통한 책출판 - 아가페출판사
	1982-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발행중수 3만종(33,321종), 발행부수 1억부 돌파 • 1986년 저작권법 개정 및 1988년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 • 1990년 발행중수 4만종(41,712종), 발행부수 2억부 돌파 • 출판특징 - ① 출판사간의 격차 심화, ② 출판사의 출판분야 전문화, ③ 백과사전류 발행, ④ 책의 판형 다양화와 대형화, ⑤ DTP의 전자시대 발전 • 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독서인구 확대
출판 전환기	199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경기 침체 - 사회환경 변화, 즉 인터넷서점과 도서대여점 출현, 멀티미디어시대로 전자출판물 생산과 이용 급증 • 1991년 발행중수 2만종(22,769종)으로 급감 - 2004년까지 2만종 유지 • 독서 경향 변화 - 실용서, 애니메이션, e-book, DVD-Rom 이용 • ISBD제도 도입 - 1991년 시행 • CIP제도 도입 - 2003년 시행

2. 시대별 판권기 사례

위의 <표 1>의 구분에 일제강점기부터 출판된 도서의 판권기 사례를 시대별로 제시하여 살펴본다. 판권기 선정은 그 당시의 최대출판사라든가 아니면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발행한 출판사의 도서 판권기를 사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판권기 기재요소가 사회제도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봄, 이때 판권기의 기재요소가 목록작성시 필요한 서지사항,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원 등에 해당되는 요소인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가. 1910 - 1919년

“1900년대 들어서 비로소 규모가 짜인 민간 인쇄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창설된 광문사와 박문사는 대표적인 인쇄소들이다. 1908년에는 신문관과 보인사가 새로 설립되었다. 구한말의 대표적인 석판인쇄소로 꼽히던 문아당인쇄소도 이 무렵에 생겼다.”¹⁶⁾

신문관에서 1916년에 발행한 『조선말본』¹⁷⁾의 판권기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판권기 사례	목록 서지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 유용한 정보
不許翻刊 大正五年四月十日 印刷 大正五年四月十三日 發行 조선말본 定價金五拾錢	발행년 표제 가격	복제금지 판권년 저작물	
京城府三角町二十二番地 著作者 金 科 奉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十一番地 發行者 崔 昌 善 全 印刷者 崔 誠 愚 全 印刷所 新 文 館	책임표시	저작자 출판권자	저자주소
總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十一番地 新 文 館 振替口座 京城六六四番	발행지, 발행처		출판사주소 계좌번호

<그림 1> 『조선말본』 판권기 사례

나. 1919 - 1939년

“한성도서는 우리나라 출판사중 최초로 기업화된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춘 곳이며 ... 1920년 5월에 ... 순수한 민족자본금 30만원으로 설립하였다”¹⁸⁾ 그리고 “1934년 ... 사세를 확장한 뒤부터

16) 이중한 등, 우리출판 100년(서울 : 현암사, 2001), p.52.

17)金科奉, 조선말본(京城 : 新文館, 大正五年(1916)).

… 일반 단행본 출판에 힘을 기울이게 되는데”¹⁹⁾에서 보듯이 한성도서는 당시에 활동한 출판사 중의 하나이다.

한성도서에서 1934년에 발행한 『現代鐵棒運動法』²⁰⁾의 판권기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판권기 실례	목록 서지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 유용한 정보
不許複製 翻譯等嚴禁		복제금지	
現代鐵棒運動法 定價金 六拾錢 送料 六錢	표제 가격	저작물	
昭和九年一月十五日 印刷 昭和九年一月十八日 發行	발행년	판권년	
京城府花洞四二番地 著作人 徐 相 天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發行人 韓 奎 相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人 金 鎮 浩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책임표시	저작자 출판권자	저자주소
發行兼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振替口座京城七六六〇番 電話長光一四七九番	발행처 발행지		출판사주소 계좌번호 전화

<그림 2> 『現代鐵棒運動法』 판권기 사례

다. 1939 - 1945년

“우리나라에서 문고의 역사는 학예사가 조선문고를 처음 발행한 1939년부터 시작된다”²¹⁾며 문고관의 발행을 시작하게 된다.

학예사에서 1939년에 문고본으로 발행한 『朝鮮小說史』²²⁾의 판권기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18) 이중한 등, 전계서, p.61.

19) 상계서, p.63.

20) 徐相天, 現代鐵棒運動法(京城 : 漢城圖書株式會社, 昭和九年(1934)).

21) 이중한 등, 전계서, p.79.

22) 朝鮮小說史(京城 : 學藝社, 昭和十四年(1939)).

판권기 실례	목록 서지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 유용한 정보
朝鮮文庫 第2部 第6冊 朝鮮小説史 定價五十錢 昭和十四年六月二十五日 印刷 昭和十四年 七月 三日 發行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發行者 崔南周 京城府堅志町一一番地 印刷人 金容圭 京城府堅志町一一番地 印刷所 株式會社 大同出版社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耶蘇ビル內 學藝社 振替京城一六一六四番	총서표제 표제 가격 발행년 발행지, 발행처	저작물 판권년 출판권자	독자에 유용한 정보 출판사주소 계좌번호

<그림 3> 『朝鮮小説史』 판권기 사례

라. 1945 - 1950년

해방후 “신간도서로는 조광사가 펴낸 추산인편 『조선인민에게 고함』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뒤를 이어 …”²³⁾ 그리고 수도문화사에서서는 1949년 『내가 넘은 삼팔선』을 출판하면서 당시의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²⁴⁾

조광사에서 1946년에 발행한 『現代朝鮮文學全集』²⁵⁾의 판권기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판권기 실례	목록 서지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 유용한 정보
現代朝鮮文學全集 版權 一九四六年四月十五日 印刷 一九四六年四月二十日 發行 現代朝鮮文學全集(短篇集) 臨時定價 貳拾錢 送料 貳拾錢 著作兼 發行者 朝光社 서울市中區太平通一丁目六一 印刷所 朝光社 서울市中區太平通一丁目六一 發行所 株式會社朝光社 電話本局②七六九〇番 振替京城三二七一一番	발행년 표제 가격 책임표시 발행처 발행지	검인지 저작물 저작자 출판권자	독자에 유용한 정보 출판사주소 전화 계좌번호

<그림 4> 『現代朝鮮文學全集』 판권기 사례

23) 이중한 등, 전계서, p.97.

24) 상계서, p.248.

25) 朝光社 編, 現代朝鮮文學全集(서울 : 株式會社朝光社, 1946).

마. 1950 - 1953년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출판활동을 멈추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였다.

을유문화사에서 1952년에 발행한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²⁶⁾의 판권기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판권기 실례	목록 서지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 유용한 정보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 定價一五, 〇〇圓 四二八五年九月五日 印刷 四二八五年九月十日 發行 譯者 乙酉文化社 編輯部 發行所 乙酉文化社 臨時事務所 釜山市光復洞一街六一 【서울신문社 印刷】 (4283年 11月 1日 登錄第43號)	표제 가격 발행년 책임표시 발행처 발행지	저작물 저작자 출판권자 출판사등록	출판사주소

<그림 5>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 판권기 사례

바. 1953 - 1957년

1955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일반도서의 행정이 문교부로 이관되었다. 당시의 출판사들은 교과서 출판으로 경영기반을 다진 출판사들이었다.”²⁷⁾ 한편 1950년대의 상징적 베스트셀러인 『자유부인』은 1954년 정음사에서 출판되었다.

정음사에서 1954년에 발행한 『改稿 國文學史』²⁸⁾의 판권기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판권기 실례	목록 서지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 유용한 정보
우리의 맹세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주검으로써 1.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1.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검인 4287年 8月 10日 初版印刷		검인지	

26) 乙酉文化社 編輯部,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부산 : 乙酉文化社, 단기4283(1952)).

27) 이중한 등, 전계서, p.109.

28) 金思燁, 改稿 國文學史(서울 : 正音社, 단기4287(1954)).

관련기 실례	목록 서지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 유용한 정보
4287年 8月 29日 初版發行 著者 金思燁 發行者 崔映海 印刷者 第一印刷社 發行處 正音社 서울特別市中區會賢洞1街3의2 (登錄 第23號) 改稿 國文學史 〈定價 1,200圓〉	발행년, 판표시 책임표시 발행처 발행지 표제 가격	판권년 저작자 출판권자 출판사등록 저작물	출판사주소

〈그림 6〉 『改稿 國文學史』 판권기 사례

사. 1957 - 1970년

활자개량으로 “현대화된 최신식 인쇄기 시설의 확충은 1960년대 초의 전집 출판 붐을 제작측면에서 뒷받침할 수가 있다”²⁹⁾ 한편 “1963년에 이어령의 『흙속에 저 바람속에』는 ‘에세이 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³⁰⁾ 이 책은 현암사에서 출판하였다.

현암사에서 1963년에 발행한 『흙속에 저 바람속에』³¹⁾의 판권기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관련기 실례	목록 서지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 유용한 정보
著者紹介 忠南 牙山郡 溫陽에서 出生..... 【著書】 抵抗의 文學, 知性的의 오솔길, 論文 多數 검인 흙속에 저바람속에 定價 220원 著者 李御寧 組版 東亞出版社 印刷人 三省印刷所 發行處 玄岩社 事務所 서울鐘路2가75의9 영보빌딩52號 編輯部 서울特別市鐘路區三清洞 35-131	표제 가격 책임표시 발행처 발행지	검인지 저작물 저작자 출판권자	저자약력 저자저서 출판사주소

29) 이중한 등, 전계서, p.118.

30) 상계서, p.259.

31) 李御寧, 흙속에 저 바람속에(서울 : 玄岩社, 1964).

판권기 실례	목록 서지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 유용한 정보
電話(74)4500(晝間)(74)0477(夜間) 對替(振替)口座 서울987番 出版社登錄 1951. 12. 24. 第275號		출판사등록	전화 계좌번호
初版發行 1963. 12. 15 再版發行 1963. 12. 26 十版發行 1964. 11. 30	판표시 발행년	판권년	

〈그림 7〉 『흙속에 저 바람속에』 판권기 사례

아. 1970 - 1982년

“단행본과 문고본의 출판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³²⁾ 그리고 “우리사회의 지적 수준의 성장과 사회적 문화 유형이 변모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³³⁾ 1976년에 연간출판종수가 1만종을 돌파한다.³⁴⁾ 70년대 작가라는 말이 있듯이 “7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베스트셀러가 시작되는 느낌이다.”³⁵⁾ 당시의 베스트셀러 중 민음사에서 펴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다.

문학과지성사에서 1978년에 발행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³⁶⁾의 판권기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판권기 실례	목록 서지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 유용한 정보
검인 趙世熙小說集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값 1,300원 1978年 6月 5日 初版印刷 1978年 9月 15日 7版發行 著者 趙世熙 發行人 鄭智英 發行處 文學과 知性社 서울 鐘路區 通義洞 35-84 登錄番號 12-22(1975. 12. 12) 印刷處 民衆書館工務局 文學과知性社(74)1387	표제 가격 판표시 발행년 책임표시 발행처 발행지	검인지 저작물 판권년 저작자 출판권자 출판사등록	출판사주소 전화

〈그림 8〉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판권기 사례

32) 이중한 등, 전계서, p.130.

33) 상계서, p.136.

34) 대한출판문화협회, 2007 한국출판연감 자료편(서울 : 대한출판문화협회, 2007), p.126.

35) 이중한 등, 전계서, p.267.

36) 趙世熙,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서울 : 文學과 知性社, 1978).

자. 1983 - 1990년

1983년에 우리나라의 연간 발행종수가 3만종을 넘었다.³⁷⁾ 컴퓨터 조판 시스템이 도입되고, 국제 저작권조약가입 등 출판환경의 변화로 출판의 재혁신과 번영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그야말로 출판의 황금시대다.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출판된다. 출판사는 현암사, 한길사, 행림출판사 등등이 있다. 한길사에서 1989년에 발행한 『社會科學原論』³⁸⁾의 판권기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판권기 실례	목록 서지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 유용한 정보
著者 金洛中 1931년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 저서로 한국노동운동사(공저) 한국노동운동사(해방후편)..... 등이 있음 검인 오늘의 思想新書 94 사회과학원론 저 자 金 洛 中 발행인 金 彦 鎬 발행처 한 길 사 132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01-21 등록 1976년 12월 24일 제6-15호 전화 922-9521~5 대체구좌 010033-31-541508 제1판 발 행 1986년 1월 25일 제3판 발 행 1987년 8월 31일 *과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총서표제 표제 책임표시 발행처 발행지 판표시 발행년 값 5,500원	검인지 저작물 저작자 출판권자 출판사등록 판권년 가격	저작약력 저자저서 출판사주소 전화 계좌 과본교환

<그림 9> 『社會科學原論』 판권기 사례

차. 1990년 이후

1990년대는 정보기술혁명이 경제사회구조와 인간의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1990년의 4만종을 넘었던 발행종수가 1991년에는 2만종으로 떨어진다. 즉 멀티미디어의 시대를 맞아 전자출판물이 거세게 등장한다. 출판은 실용서 위주의 도서가 발행된다. 1991년에 우리나라에도 ISBN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2003년에는 CIP제도가 시행된다.

도서출판 오래에서 2010년에 발행한 『심리학 노트에 쓴 행복이야기』³⁹⁾의 판권기를 살펴보면 다

37)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계서, p.126.

38) 金洛中, 사회과학원론(서울 : 한길사, 1987).

39) 이종목, 심리학노트에 쓴 행복이야기(서울 : 도서출판 오래, 2010).

음 <그림 10>과 같다.

판권기 실례	목록 서지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 유용한 정보
심리학 노트에 쓴 행복이야기 초판 1쇄 인쇄 2010년 6월 5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6월 15일 지은이 이종목 발행인 황인욱 발행처 도서출판 오래 디자인 피엔피디자인(www.ibook4u.co.kr)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56-13 이메일 ore@orebook.com 전 화 (02)797-8786~7, 070-4109-9966 팩 스 (02)797-9911 홈페이지 www.orebook.com 출판신고번호 제302-2010-000029호 ISBN 978-89-964231-3-3(03100)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드립니다.	표제 판표시, 발행년 책임표시 발행처 발행지 표준번호	저작물 판권년 저작자 출판권자 출판사등록	출판사주소 e-mail 전화 팩스 홈페이지 가격안내 파본교환

<그림 10> 『행복이야기』 판권기 사례

IV. 판권기 기술요소 비교분석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도서의 판권기 사례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회 환경이 변하거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될 때마다 기재요소의 틀이나 항목도 변하거나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판권기의 기능에 따라 기재요소의 변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지기술의 정보원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기술대상자료의 서지사항은 국제표준서지기술(ISBD)에서 규정한 요소에 따라 서지사항을 조직적으로 기술한다. 단행본의 경우, 서지기술 요소는 크게 7개의 사항, 즉 “표제 및 책임표시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⁴⁰⁾ 등으로 구분된다. 판권기의 기재요소가 목록작성에 필요한 서지사항의 정보원으로 활

용되는지의 정도를 시대별로 다음의 <표 2>와 같이 살펴보았다.

<표 2> 서지기술의 정보원으로서의 판권기 기재요소

구분	1910 - 19	1919 - 39	1939 - 45	1945 - 50	1950 - 53	1953 - 57	1957 - 70	1970 - 83	1983 - 90	1990 이후
표제	○	○	○	○	○	○	○	○	○	○
책임표시	○	○	○	○	○	○	○	○	○	○
판표시	X	X	X	X	X	○	○	○	○	○
발행지	○	○	○	○	○	○	○	○	○	○
발행처	○	○	○	○	○	○	○	○	○	○
발행년	○	○	○	○	○	○	○	○	○	○
형태사항	X	X	X	X	X	X	X	X	X	X
총서표제			○						○	
가격	○	○	○	○	○	○	○	○	○	X
ISBN	X	X	X	X	X	X	X	X	X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비교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권기의 기재요소는 목록작성에 필요한 서지사항의 요소를 대부분 다루고 있다. 다만 형태사항과 관련한 기재는 신서가 발행된 1910년경부터 현재까지도 표시되지 않고 있다. 향후 판권기가 서지사항의 정보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크기와 관련한 요소도 포함되어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출판시도서목록(CIP)의 형식의 기술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판표시에 대한 기재는 전후인 1953년경부터 초판이라는 문구로 기재되기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발행’ 정도로 기재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까지도 판과쇄의 용어정의가 불분명하여 혼용되어 왔다.

셋째, 발행년에 대한 표기는 역사적 환경에 따라 그 시대의 연호, 즉 일제강점기에는 대정, 소화 등을 사용하고, 해방 후부터 1961까지는 단기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서기를 기재하고 있다.

넷째, 정가에 대한 표기는 오히려 최근에 이르러 판권기에서 생략되고, 뒷표지 혹은 다른 곳에 기재되고 있다.

다섯째, “ISBN제도는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도서에 고유번호를 주어 문헌정보와 서지유통의 효율화를 기하는 제도”⁴¹⁾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판권기에는 ISBN이 기재되지 않았다.

40)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전계서, pp.96-97.

41)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한국문헌번호편람, 5판(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8), p.11.

2. 저작권 관련 사항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⁴²⁾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출판물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사항은 저작물(공동저작물), 발행, 성명 표시권, 출판권 등이며 이외에도 검인지 사용, 출판사 등록, 복제금지 등의 요소가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한 사항을 판권기에 표기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시대별로 살펴본 것이 다음의 <표 3>이다.

<표 3> 저작권법 관련 사항으로서의 판권기 기재요소

구분	1910 - 19	1919 - 39	1939 - 45	1945 - 50	1950 - 53	1953 - 57	1957 - 70	1970 - 83	1983 - 90	1990 이후
검인지	X	X	X	○	X	○	○	○	○	X
저작물	○	○	○	○	○	○	○	○	○	○
저작자	○	○		○	○	○	○	○	○	○
판권년	○	○	○	○	○	○	○	○	○	○
출판권자	○	○	○	○	○	○	○	○	○	○
출판사등록	X	X	X	X	○	○	○	○	○	○
복제금지표시	○	○	X	X	X	X	X	X	X	X
국가 표시	X	X	X	X	X	X	X	X	X	X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비교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권기의 기재요소 중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사항은 저작물, 저작자, 판권년, 출판권자, 출판사 등록 등의 사항을 대부분 다루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에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등을 등록할 수 있다⁴³⁾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적표기⁴⁴⁾를 하도록 권장한다.

둘째, 검인은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발행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권지에 찍는 도장”⁴⁵⁾을 말한다. 검인지의 표기는 해방 후부터 사용되어 오다가 저작권법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셋째, 저작권법에 관련해서 발행년은 판권년(copyright date)이라고도 불리며 “개개작품에 저작권이 주어진 날짜”⁴⁶⁾를 의미한다. 따라서 표제면의 뒤쪽이나 판권지에 표시되어 있다.

넷째, 일제강점기에 복제 혹은 번간(飜刊)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있었으나, 해방 후부터 표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재하지 않아도 불법으로 복제할 때는 저작권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42) 저작권법, 제1장 제1조(개정 2009. 7. 31).

43) 저작권법, 제53조(개정 2009. 7. 31).

44) 일부의 출판사들이 국적표기를 'printed in Korea'로 하고 있다.

45) 박신흥 편저, 전계서, p.16.

4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전계서, p.363.

3.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원

판권기의 기재요소의 결정은 출판사가 임의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은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앞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재요소들이 명멸하고 있다. 요소 중에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원으로 활용되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시대별로 살펴본 것이 다음의 <표 4>이다.

<표 4>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의 판권기 기재요소

구분		1910 - 19	1919 - 39	1939 - 45	1945 - 50	1950 - 53	1953 - 57	1957 - 70	1970 - 83	1983 - 90	1990 이후
저작자	약력사항	X	X		X	X	X	○	X	○	X
	주소	○	○		X	X	X	X	X	X	X
출판사 연락처	주소	○	○	○	○	○	○	○	○	○	○
	전화	X	○	X	○	X		○	○	○	○
	팩스	X	X	X	X	X		X	X	X	○
	e-mail	X	X	X	X	X		X	X	X	○
	홈페이지	X	X	X	X	X		X	X	X	○
인쇄소 주소		○	○	○	○	X		X	X	X	X
과본교환정보		X	X	X	X	X	X	X	X	○	○
대체계좌번호		○	○	○	○	X	X	○	X	○	X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비교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사 주소의 표기는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재되기 보다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기재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신서의 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표기되고 있다. 인쇄소의 주소 표기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전까지의 기재요소였는데 그 이후로는 인쇄소 명은 표기되나 인쇄소 주소는 생략되고 있다.

둘째, 출판사의 판매영업과 관계있는 사항으로 대체계좌번호의 표기를 볼 수 있다. 이는 전쟁 이전의 기재요소로 표기되었으나 유통과정의 변화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셋째, 저작자에 관한 사항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저작자의 주소도 기재하고 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로 저작자의 주소가 생략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는 판권지 상단에 저자의 약력과 저작물을 실어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출판사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전화, 팩스, e-mail, 홈페이지 주소 등 연결정보를 표기하고 있고, 또한 독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4. 기재위치 및 기술방식

우리나라의 도서 판권기의 기재위치와 기술방식을 시대별로 정리한 것이 다음 <표 5>이다.

<표 5> 판권기 기재위치 및 기술방식

구분		1910 - 19	1919 - 39	1939 - 45	1945 - 50	1950 - 53	1953 - 57	1957 - 70	1970 - 83	1983 - 90	1990 이후
기재 위치	표제지이면										○
	마지막쪽	○	○	○	○	○	○	○	○	○	
기술 방식	가로기술						○			○	○
	세로기술	○	○	○	○	○		○	○		

우리나라에서 판권기의 기재 위치는 일반적으로 도서의 말미나 마지막 쪽(페이지)에 여러 요소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사례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단, 최근에 이르러 표제지 이면, 또는 면지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판권기의 기술방식은 당해 도서의 본문 문장이 세로로 기술되어 있을 경우에는 판권기도 세로로 표기되어 있으며, 본문의 문장이 가로로 기술되어 있을 경우에는 판권기도 가로로 표기되어 있다. 세로로 표기된 판권기의 경우 신서가 발행된 1900년경부터 1950년대까지 도서출판의 일반적 흐름이었다.

V. 결 론

판권기(colophon)는 책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으로 당해 책과 관련된 여러 서지사항을 한곳에 모아 표기한 것으로 책의 말미나 마지막 쪽, 표제지 이면에 위치한다. 이런 서지사항을 담은 판권기는 목록작성에 필요한 서지사항의 정보원, 저작권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 독자에게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원 등의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 도서 판권기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 본 후, 판권기의 기능에 따라 시대별로 판권기 사례를 제시하고 판권기에 실린 기재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고서와 신서의 구분은 1900-1910년을 경계로 한다. 1900-1910년 이후 오늘까지 100여년의 출판역사를 사회문화와 제도적인 환경에 따라 근대출판 태동기, 일제강점기, 해방과 전쟁기, 출판전설기, 상업출판기, 출판전환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서지기술 정보원의 기능으로 살펴보면, ① 판권기의 기재요소는 목록작성에 필요한 서지사

항의 요소를 대부분 다루고 있다. 다만 형태사항과 관련한 기재는 신서가 발행된 1910년경부터 현재까지도 표시되지 않고 있다. 향후 판권기가 서지사항의 정보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크기와 관련한 요소도 포함되어 기재되어야 한다. ② 판표시에 대한 기재는 전쟁후인 1953년경부터 초판이라는 문구로 기재되기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발행' 정도로 기재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까지도 판과쇄의 용어정의를 불분명하여 혼용되어 왔다. ③ 발행년에 대한 표기는 역사적 환경에 따라 그 시대의 연호, 즉 일제강점기에는 대정, 소화 등을 사용하고, 해방 후부터 1961까지는 단기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서기를 기재하고 있다. ④ 정가에 대한 표기는 오히려 최근에 이르러 판권기에서 생략되고, 뒷표지 혹은 다른 곳에 기재되고 있다. ⑤ ISBN제도는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도서에 고유번호를 주어 문헌정보와 서지유통의 효율화를 기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판권기에는 ISBN이 기재되지 않았다.

셋째, 저작권법 관련사항의 기능으로 살펴보면, ① 판권기의 기재요소 중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사항은 저작물, 저작자, 판권년, 출판권자, 출판사 등록 등의 사항을 대부분 다루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에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등을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적표기를 하도록 권장한다. ② 검인은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발행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권지에 찍는 도장을 말한다. 검인의 표기는 해방 후부터 사용되어 오다가 저작권법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③ 저작권법에 관하여 발행년은 판권년(copyright date)이라고도 불리며 개개작품에 저작권이 주어진 날짜를 의미한다. 따라서 표제면의 뒤쪽이나 판권지에 표시되어 있다. ④ 일제강점기에 복제 혹은 번간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있었으나, 해방 후부터 표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재하지 않아도 불법으로 복제할 때는 저작권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넷째, 독자에게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원의 기능으로 살펴보면, ① 출판사 주소의 표기는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재되기 보다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기재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신서의 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표기되고 있다. 인쇄소의 주소 표기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전까지의 기재요소였는데 그 이후로는 인쇄소 명은 표기되나 인쇄소 주소는 생략되고 있다. ② 출판사의 판매영업과 관계있는 사항으로 대체계좌번호의 표기를 볼 수 있다. 이는 전쟁 이전의 기재요소로 표기되었으나 유통과정의 변화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③ 저작자에 관한 사항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저작자의 주소도 기재하고 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로 저작자의 주소가 생략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는 판권지 상단에 저자의 약력과 저작물을 실어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출판사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전화, 팩스, e-mail, 홈페이지 주소 등 연결정보를 표기하고 있고, 또한 독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다섯째, 기재위치와 기재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① 판권기의 기재 위치는 일반적으로 도서의 말

미나 마지막 쪽(페이지)에 여러 요소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사례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단, 최근에 이르러 표제지 이면, 또는 면지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② 판권기의 기술방식은 당해 도서의 본문 문장이 세로로 기술되어 있을 경우에는 판권기도 세로로 표기되어 있으며, 본문의 문장이 가로로 기술되어 있을 경우에는 판권기도 가로로 표기되어 있다. 세로로 표기된 판권기의 경우 신서가 발행된 1900년경부터 1970년대까지 도서출판의 일반적 흐름이었다.

이와 같이 판권기의 기재요소는 사회문화와 제도의 환경에 따라 추가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앞으로도 판권기의 기능에 맞는 요소들을 반영한 판권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희일. 한국출판의 이해. 서울 : 생각의 나무, 200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센터 편. 출판사도서목록편람, 개정3판.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편. 한국문헌번호편람, 5판.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8.
- 김진섭. 책 잘 만드는 책. 제3판. 서울 : 은행나무, 2008.
- 대한출판문화협회 편. 2007 한국출판연감 자료편. 서울 : 대한출판문화협회, 2007.
-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 <<http://www.kpa21.or.kr>> [인용 2009. 8. 10].
- 열린책들 편집부 편. 2010 열린책들 편집매뉴얼. 서울 : 열린책들, 2010.
- 이명규. “우리나라의 도서 판권기 기술서지 요소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3), pp.211-231.
- 이중환 등. 우리 출판 100년. 서울 : 현암사, 2001.
- 최윤하. 도서 판권기의 기술요소 분석: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 A & C Black Publishers Ltd. *Dictionary of Publishing And Printing*. 3rd ed. Consortium Book Sales & Dist, 2006.
- Chicago University Press.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5th edition.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2003.
- Poynter, Dan. *The Self-Publishing Manual*. Lightning Source Inc., 2006.

